소년단

1954.7

Pamphlet
Subject: Boyscouts
For Children
Date of Publication: 20 July 1954
Publisher : Democratic Youths Press
Price : 40 won

곤 충 잡 이

높은 봉우에서

리 호 남

오르견 오를쑤록 가파로운
산발을 정복하며
산우에 나붓기는
붉은 넥타이 펄펄
굽어보면 많고많은 고지들—

옛날부터 이름없던 저기에도
날날이 이름 붙이며 내달던
영웅들의 이야기로 끝없는
높고 낮은 산악들!
우쭐 우쭐 키솟음 하며
반겨 맞는구나 우리를—

도리쳐 보면 인민 군대 용사
  들이
미제 날강도 놈들께
불벼락을 퍼부어 죽음 준
자랑스러운 고지들—

승리의 만세!를 웨치면
골짝마다 쩡쩡 메알이하여
고지에 군기를 높이던 용사
  처럼
자랑 스럽고나!

용감히 싸워 지킨 우리나라
볼쑤록 아름다운 강산!
봉에도 상상봉 하늘가에
소년단 깃발을 날려
탐승하는 우리의 오늘은
  행복도 하다。

별과 가차이 속삭일
이 봉우리에 어둠 깃들면
활활 우등불을 피워
우리의 희망
불길로 솟게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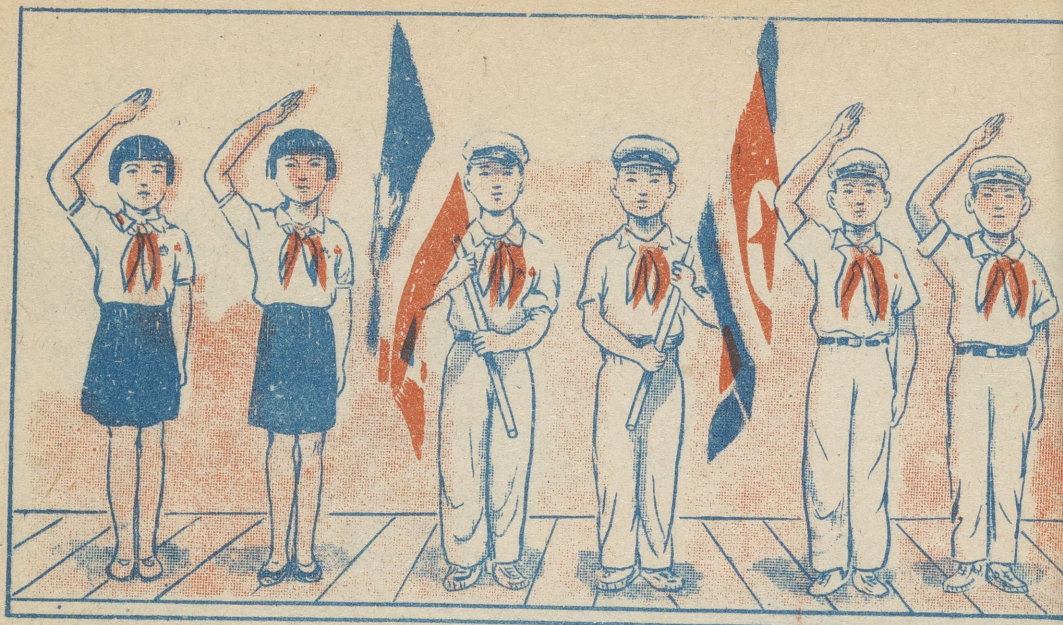
장백산맥 줄기 줄기 타고
왜적을 물리치던 항일
  빨찌산의 전통
위대한 그 전통 이은
형님들을 본받아 영웅 나라
  일꾼됨을
김일성 원수님께 맹세드리자

1954,7

곤 충 잡 이

◁합창시▷

수령님께 맹세를 드린다

김 경 태

나오는 사람들

주창자

학생들—1, 2, 3, 4, 5, 6 (남녀 소년단원들)

무 대

흰 포장한 복판에 김일성 원수의 초상을 모시고 빛발이 뻗치는 장식(데프)을 한다。

남녀 혼성으로 되는 〃소년단 행진곡〃이 들려 오는 속에 막이 오르면 주창자, 학생들, 모형 비행기, 포충망, 고무공 등을 가지고 적당한 유희를 하고 있다。

— 짧은 사이 —

노래 소리 멀어지며 『어기영 어기영 어기영차』 목도 소리(노래조로)가 우렁차게 들려 온다。

(주창자, 한 손을 높이 들어 앞을 가리킨다 학생들 그 쪽을 향하여 주창자를 중심으로 모여선다)

주창자 우리의 학교가 다시 일어선다。

승리한 영웅의 땅에

합 창 푸른 하늘을 떠받고

우리의 학교가 다시 일어선다

(학생 화구를 막는 것처럼 두 팔 벌리고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학생1 불뿜는 원쑤의 화구를

가슴으로 막아

공화국 깃발 높이 휘날린

김창걸, 리수복, 김성진 영웅들

(이때 무대 왼쪽에 휘날리는 공화국기—사람은 보이지 않게—를 모우러러보며)

학생4 인민 군대 형님들이 피로써 지켜

승리한 조국 영웅의 땅에

학생1 2, 3 일어선다!

학생4 5, 6 일어선다!

합 창 우리의 학교가 다시 일어선다。

(주창자, 선반기 핸들을 돌리는 동작을 한다 남은 학생들은 [illegible]식으로 포탄을 나르는 동작)

학생2 원쑤의 포탄이 쏟아지는 속에서도

기계를 돌리고 포탄을 깎아

전선으로 전선으로 보낸

로동자 아저씨들!

학생5 로동자 아저씨들이 목숨으로 지켜

승리한 조국 영웅의 땅에

학생4, 5, 6 일어선다!

학생1, 2, 3 일어선다!

합 창 우리의 학교가 다시 일어선다。

(주창자, 발갈이 하는 동작, 남은 학생들은 씨뿌리는 동작)

학생3 원쑤의 기총탄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한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내여

전선으로 전선으로 보낸

농민 아저씨들!

학생6 모두가 한 사람 같이 싸워

승리한 조국 영웅의 땅에

학생1, 2, 3 일어선다!

학생4, 5, 6 일어선다!

합 창 우리의 학교가 다시 일어선다。

(주창자 두 손을 높이 쳐들어 하늘을 우러러보며)

주창자 빛나는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신

김일성 원수님의 부름 따라

학생6 부모, 형님, 누나들은 복구와 건설의 길로

한 사람 같이 일어섰다。

합 창 한 사람 같이 일떠섰다。

(간주)

주창자 (가슴 위에 두 손을 얹고)

원쑤놈들이 전쟁을 이르킨

그날을 우리는 잊지 않는다。

학생5 밝은 유리창마다에

글 읽는 소리 맑게 울리고

노래소리, 웃음소리 넘쳐 흐르면

우리의 즐거운 학교—

(모두들 한걸음 앞으로 나오며)

학생3 우리 학교에도 원쑤놈들은

마구 포탄을 퍼부었다

학생1 우리들의 노래와 웃음을

마구 짓밟으며 들었다

주창자 포탄에 패여 어지러운 운동장에서

불길속에 무너지는 교사를 보고

발 버둥치며 우는 우리를—안아 주고

학생1, 2, 3 (일어서며)

—원쑤 원쑤를 갚고야 말겠다고!

합 창 전선으

로 용

감히떠

나신아

버지들

과 형

님, 누

나들

주창자 무섭게

타번지

는 불길 헤쳐

우리의 이름 소리쳐 부르며 달려온

어머니들도 흐르는 눈물 거두고

학생4, 5, 6

싸우는 전선의 승리를 위해

합 창 복구대로 복구대로 나아가셨다。

주창자 오늘은 그 모든 상처를 털고

우리의 학교가 장엄히 일어선다。

학생1 원쑤와 싸워 이긴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의

학생5 형님과 누님들의

우렁찬 건설의 노래와 함께

(재가끔 적당한 로동의 동작)

학생3 패였던 운동장이 고루 넓어지고
학생4 무너졌던 벽돌담이 높이 쌓이고
학생6 밝은 유리창들이 다시 빛난다。

(간주)

주창자 돌아보면 불비 속에 3년
가렬한 싸움의 날과 날들을
산골짝 좁은 토굴 학교에서도
학생1 수령님의 가르침 받들고 환한
마음으로
학습에 모든 힘 바쳐온 우리!

(나무가지 풀잎으로 위장을 한 학생들 간주에 맞춰 왼쪽에서 등장하여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학생3 불길 솟는 고지를 넘고 또 넘어
원쑤를 쳐부수는 인민 군대 형
님들처럼
학생5 밤도아 일손 멈추지 않는
로동자, 농민 아저씨들처럼

(이때 무대 오른쪽에 휘날리는 소년단기—사람은 보이지 않게—를 우러러보며).

학생6 자랑스러운 우리의 깃발
소년단기를 앞에 휘날리며
합 창 우리는 배움의 길에서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학생4, 선자리에서 좀 떠더치고 주창자 앞서면서 그를 이끌며)
학생2 동무들끼리 서로 도와 싸우는
마음으로 전과목 5점을 향해
합 창 앞으로 앞으로 나아간 우리!
학생1, 2, 3 우리는 쉬지 않고 배
웠다!
학생4, 5, 6 모자라는 일손을 도
웁기도 했다。
합 창 모든 것을 전선의 승리를 위
하여!
영웅 나라 소년단원의 영예를
지켜!
(간주)

주창자 수령님
이 가
르키는
승리의
길에서
무서운
불길을
뚫고 용
감히 싸
운
학생2 인민 군대 형님들의 싸움으로
학생4 로동자, 농민 아저씨들의 싸움
으로
합 창 승리의 깃발 높이 솟았다!
주창자 행복의 나라 쏘련 인민들과 함
평화와 자유를 사랑하는
학생3 온 세계 인민들의 뜨거운 손길
합 창 원쑤를 무찌르는 우리에게
치였었고
주창자 위대한 중국의 아저씨들, 형
누나들은 우리를 도와 인
군대 형님들과
학생5 공동의 원쑤를무찔러 용감히싸우
합 창 승리의 깃발은 높이 휘날렸다。
(비둘기를 날리면 더욱 좋다)
주창자 아, 승리의 날!
〃김일성 원수 만세〃를 불
휘날리는 기폭 날리는 꽃보라
거리와 마을이 온통 바다처
합 창 바다처럼 끝없이 너울친
아, 승리의 그날!
학생3 영웅의 고지마다에서
학생5 공장과 광산마다에서
학생1 들과 산과 학교마다에서
주창자 비둘기 날아드는 푸른 하늘
축포 소리 은은한 평양
합 창 승리의 광장으로 광장으로!
(일동, 수령의 초상을 우러러보며)
학생6 언제나 마음속에 그립던
수령님 뵙고저 모여든
학생2 아버지들과 어머니들은
학생4 형님들과 누님들은
합 창 우리를 맨 앞에 세워 주셨다。
학생1 〃김일성 원수 만세〃를 높이
부르는
우리의 대렬 친히 굽어보시며
인자하신 웃음
뜨거운 박수로
반겨주신 김일성 원수님!
주창자 『새 조선의 꽃봉오리, 새 조
선의 보배,
새 조선의 주인, 무럭무럭 어
서 커서,
참되게 잘 배워서 민주주의
새 조선을 세우는
영웅들이 되여주기를 바란다!』
고 하신 김일성 원수님의 말
씀을!
(일동 굳게 스크램을 짠다)
합 창 우리들은 다시한번 가슴 깊이
새겼다。
(간주)
(주창자 씩씩하게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주창자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며
우리 부모, 형님, 누나들이 울린
복구와 건설의 힘찬 마치 소리는
푸른 하늘 높이 높이 울리여
싸워 이긴 영웅 나라의
노래로 퍼졌다。
학생1 우리의 학교가 솟음쳐 오른다!
학생2 거리와 마을들이 일어선다!
학생5 공장 굴뚝들에선 연기가 핀다!
학생6 넓은 들을 갈아 뜨락또르이 달
린다!
(일동 수령의 초상을 우러러본다)
주창자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앞날을 생각하시여
수령님께서 손수 꾸미신
위대한 설계도에서 나오는행복!
(학생1을 제외하고 일동 따바리 들어 쥐고 보초를 선듯한 동작)
학생1 이땅에 다시는 원쑤놈들이
전쟁의 불을 못지르도록
인민 군대 형님들은
오늘 영웅의 고지 방선을 지키고
학생6 전쟁에서 입은 상처를 씻고
분초를 다투어 우람히 일어서는
학생1 공장과 학교, 거리와 마을들을
위하여
학생2, 4 쏘련에서 중국에서
학생3, 5 많은 형제의 나라들에서
합 창 기술자들과 기계들이 달려온다。
(학생2를 제외하고 일동 기계를 돌리는 듯한 동작)
학생2 로동자 아저씨들은
더욱 세차게 기계를 돌리고
(학생3을 제외하고 일동 밭가는 동작)
학생3 농민 아저씨들은
더욱 열심히 논밭을 가꾸신다。
(두팔을 벌리며 앞으로 한 걸음 나선다)
합 창 우리들의앞
날은 기쁨
에 찼다。
주창자 이제 새 학
년도가 돌
아오면
우리는 새
학교에 든
다!
학생2 벽돌 한장
마다에도

학생3 한장의 기와마다에도
학생4 창틀 나무마다에도
학생5 한장의 유리마다에도
주창자 우리들 새 나라 꽃봉오리를
사랑하고 아껴 주시는
학생6 인민 군대 형님들의
학생1 로동자, 농민 아저씨들의
학생3 많은 어머니들과 누님들의
합 창 뜨거운 마음들이 배인 우리의
학교!
창창 맑은 유리창으로

밝은 햇별
이 비쳐
드는
마즌편 흰
벽위에
수령님의초
상을 모
신 새교
실로!

학생5 선생님 따라 씩씩한 첫 걸음
들여놀 아침
주창자 (한걸음 앞으로 나서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님의 초상 우러러
동무들이여!
우리 모두 맹세드리자!
학생2 눈보라 사나운 백두산의 밀림
푸른 압록강 넘나드시며
일제를 무찌르던 싸움속에서도
합 창 어린이들의 앞을 밝히시여
〃아동 혁명단〃을 조직하신
김일성 원수님!
학생4 미국 강도 쳐부수던
바쁘신 때에도 틈을 내시여
산골짝 우리의 토굴 학교까지
합 창 친히 찾아 주신 김일성 원수님!

학생6 많은 새 책들을 주시고
오늘 다시 새 학교 세워
넓고 넓은 배움의 길
열어 주신 김일성 원수님!
합 창 우리들의 아버지이신
김일성 원수님께
우수한 학과 성적 올릴것을
굳게 굳게 맹세 드리자!
(〃김일성 장군의 노래〃와 함께 〃김일성 원수 만세〃 소리 우렁차게 들려오며 많은 학생들 —그 중에는 공화국기와 소년단기 휘날리는 학생도 있다— 왼쪽과 오른쪽에서 들어와 수령의 초상을 향하여 선다)
주창자 새 민주 조선을 위하여
항상 배우며 준비하자!
전 원 항상 준비!
(일동 소년단 경례)
—씩씩한 노래와 함께 막—

◁동요▷

비행사 아저씨

함북 어랑군 제4중학교 리동수

비행사 아저씨
앞가슴에 번쩍번쩍
훈장을 빛내며
우리 학교 찾아 왔어요

아름다운 우리 나라
푸른 하늘을 지켜
쌕쌔기와 싸워 이긴
전투 이야기 들려 주고요

우리는 서로 서로
5점으로 나란히 줄지어 선
자랑 찬 통지부
모두 내보여 드렸지요

우리는 〃소년단〃경례로
비행사 아저씨처럼
훌륭한 일군이 되겠다고
손을 들어 맹세했지요

장진호반에서

…조선 소년단 장진 제1 중학교 내에서…

장진 호반에 황혼이 깃든다.
함흥 평야에서 1,200m의 황초령을 넘어 개마 고원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아름다운 호수 장진 호반에도 여름 방학의 야영 생활을 즐기는 행복한 소년단원들의 노래 소리 울린다.
어느듯 날도 저물고 장진 호반의 고요한 밤은 시작되였다.
보금자리를 찾아드는 날짐승들의 나래치는 소리, 벌레들의 울음 소리만이 들릴 뿐이다.
장진 호반에서의 우등불 모임—
소년단원들은 원을 그려 뻥 둘러 앉았다. 그 한 복판에는 우등불 피울 나무들이 모둑하게 쌓여져 있고 그 옆에 우등불 피울 분단 위원장이 서 있다.
『우등불 피엿!』.
단 지도원 선생의 구령은 내렸다.
분단 위원장은 성냥을 그어 불을 지폈다.
우등불은 활활 타 오른다.
소년단원들의 환호가 오른다. 자르르— 박수 소리가 울린다.
『장진 호반! 지난 조국 해방 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기록한 전적지— 장진 호반은 항미 원조의 성스러운 깃발을 들고 조선 전선에 참가한 중국 인민 지원군과 조선 인민군이 협동 작전에서 미군의 소위 〃정예 부대〃들을 본때 있게 무찌른 곳입니다』.
장진 호반 전투에 참가하였던 인민 군대 형님의 이야기는 시작되였다.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소년단원들의 눈은 맑은 밤 하늘의 별처럼 총총 빛나고 있다.
호수는 거울 같이 하늘의 별들을 담았다.
소년단원들은 4년전 일을 회상한다.
『그때는 령하 30도의 호된 추위의 겨울이였습니다. 산들은 모두 얼어 붙어 바위마다 흰 눈에 덮인 산골짜기에서는 회오리치는 매운 바람에 나무가 몸부림치듯 흔들리고 있었습니

다. 다만 이 추위에도 아직 얼지않은 장진호의 초록색 호수에서는 흰 김이 아침마다 뭉게뭉게 피여 올랐습니다.

얼음과 눈의 전호 속에서는 조선 인민군 부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들이 공격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 날강도들은 비행기로 가림 없이 소이탄을 내리쳐 촌락들을 불 살랐고 눈 벌판에 철조망을 치고 그속에 동리에 남아있던 로동당원들과 마을 사람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인민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옳바른 령도 밑에 백배 천배의 복쑤를 준비하였습니다」.

인민군 부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 부대는 협동 작전으로 맹렬한 진격을 개시하였다. 로동당원들을 핵심으로 한 빨찌산들도 이에 협동하여 싸웠다.

아군의 노도같은 진격은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주며 인민들을 죽음의 구렁에서 구원했다. 죽음의 문 앞에서 다시 삶을 찾은 인민들은 복쑤의 불붙는 마음으로 전선 원호에 한결같이 일어섰다.

『크리스마스』전까지 조선을 몽땅 강점한다고 호통 빼면서 자기들을 당해낼 군대는 없다고 장담하던 미국놈들은 장진 호반에서 조선 인민군과 중국 인민 지원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 무리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이야기는 계속되였다.

『장진 호반에서는 격렬한 싸움이 7주야 동안 벌어졌습니다. 미국놈들은 륙전대 제1사, 제7사를 위시하여 5만 여명을 이곳에 내 몰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본국의 군대를 동원해서도 이기지 못하게 되자 미국놈들은 검둥이들을 싸움 마당에 남겨놓고 자기들은 뺑소니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군 부대들은 추격전을 전개하면서 놈들의 뒷통수에 이나라 인민의 원한에 사무친 복쑤의 불벼락을 퍼부으며 강도놈들을 깊은 물에 처박아 넣었습니다. 그때 장진 호반 일대는 놈들의 시체가 너저분히 한벌 깔렸더랬습니다」.

까부러져가는 우둥불을 마른 나무가지로 다시 돋구어 놓았다.

소년단원들은 이야기를 들어가며 제가끔 그 전투 장면들을 그려보는 것이였다. 이야기는 중국 인민 지원군 리승지 전사와 위생원 쪼밍이의 용감한 전투 이야기로 옮겨졌다.

『전투는 이처럼 가렬하여 라팔수도 위생원도 총창을 들고 수류탄을 던지며 싸웠습니다. 이와같이 장진 호반 서남쪽인 신흥리 남방 무명 고지에서의 전투는 아군의 진공을 보장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장진강을 따라 조중 국경인 압록강으로 진공하려던 적군을 물리치면서 황초령을 넘어 함흥, 흥남 지방의 해방에로 진격해 나갔던 것입니다」.

밤은 이슥히 깊어간다. 이야기도 끝나갔다.

『장진 호반이라는 이름은 지금 아름다운 호수로보다도 미군 5만 여명을 무찔러낸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의 위대한 승리의 전적지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피로써 지킨 향토, 미국놈들에게 무리죽엄을 준 영웅의 땅에 대한 사랑과 자랑으로 소년단원들의 가슴은 가득 찼다. 소년단원들은 야영의 숙사로 발길을 옮기였다. 전후 복구 건설로 더욱 빛날 래일의 장진 호반을 그려보면서!

(리 기 봉)

조선 인민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궐기하였다

제네바 회의에서의 조선 문제 토의는 미국과 그 앞잡이 나라 대표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파탄되고 말았습니다.

제네바 회의에서 우리 대표단은 조선 문제는 조선 사람 자신의 문제라는 원칙으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쏘련 및 중화 인민 공화국 대표단은 우리 대표단의 제안을 지지하며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성의있는 노력을 다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앞잡이 나라 대표들은 이 정당한 제의를 반대해 나섰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6월 15일 회의에서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를 볼 수 없다면 장차 조선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조선에서 평화적 조건을 보장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그 앞잡이 나라 대표들은 우리측 제안을 연구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읽어도 보지 않은채 무조건 반대하여 미군의 계속 주둔을 주장하고『유·엔』감시 하에 선거를 실시하여 리승만 팟쑈 통치 제도를 북조선에까지 연장하려는 소위 16개국의 공동 선언서를 읽음으로써 조선 문제 토의를 일방적으로 파탄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문제 토의를 파탄시킨 전적 책임은 바로 미국과 그 앞잡이 나라 대표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제는 왜 조선에서 미국 군대의 철거를 반대하며 자유 의사 표시에 기초한 전 조선 총 선거를 반대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만일 미국 군대가 철거하고『유·엔』의 감시 없이 조선 인민의 자유 의사 표시의 조건하에서 선거를 실시한다면 조선 인민은 통일 독립된 자기의 진정한 정권을 수립하고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시키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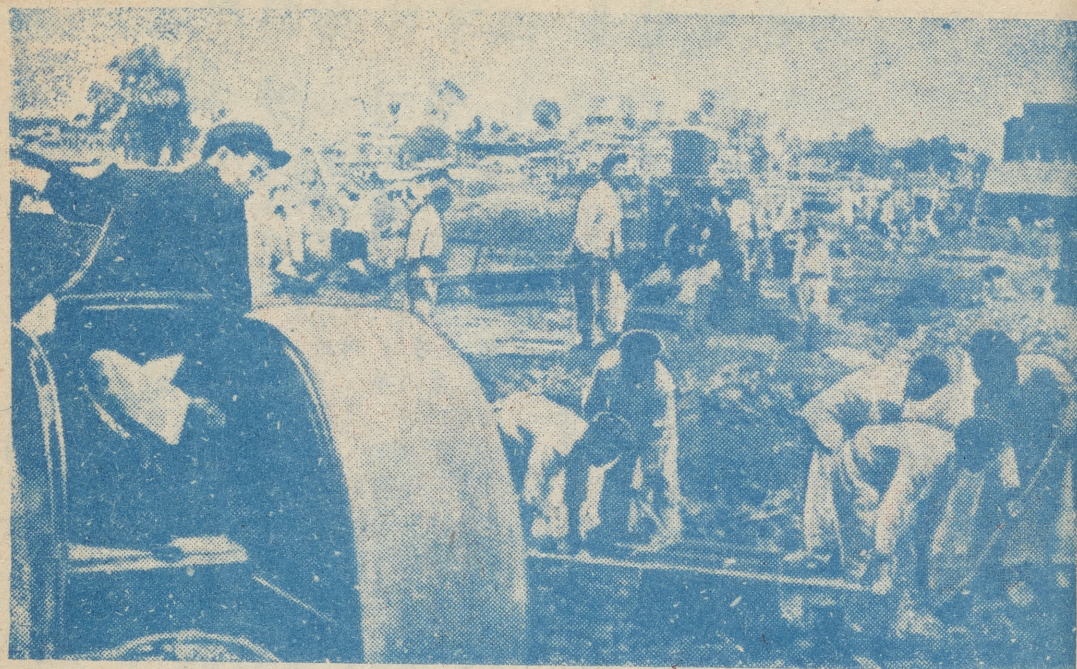
이렇게 된다면 미제의 주구인 리승만 도당의 괴뢰 정권의 파멸과 남조선에 설치된 자기의 군사 기지가 상실된다는 것을 미제는 잘 알기 때문에 조선에 대한 침략 기도를 버리지 않고 자기 군대의 철거를 반대하며 조선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결사코 반대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6월 22일 조국 통일 민주주의 전선 중앙 위원회는 이와 같이 조선 문제 토의를 파탄시키고 새 전쟁 도발에 날뛰는 미제와 그 주구 리승만 매국 도당들의 죄행을 규탄하면서 전체 조선 인민을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힘찬 투쟁에로 부르는 호소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지금 전체 조선 인민들은 이 호소문을 높이 받들고 미국 군대를 비롯한 외국 군대의 동시 철거와 조선 문제를 조선 사람끼리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힘찬 투쟁을 전개하면서 전후 인민 경제 복구 발전 3개년 계획의 완수 및 초과 완수를 위한 로력 전선에서 빛나는 성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쏘련과 중화 인민 공화국을 비롯한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조선 인민의 편에 서 있습니다.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주위에 굳게 단결된 조선 인민은 원쑤들의 여하한 침략 기도라도 매 걸음마다 폭로 분쇄하고 반드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1954, 7, 1)

민주수도 평양은 일어선다!

우렁찬 복구 건설의 노래가 우리나라 각 건설장들에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 수도 평양시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영웅의 거리 평양을 하루 바삐 아름답고 현대적인 도시로 복구 건설하기 위한 로력 투쟁의 빛나는 성과로써 8·15 해방 9주년 맞이에 한결같이 궐기하였습니다.

평양시 복구 위원회 결정 제2호가 내세운 영예로운 과업을 제 기일보다 앞당겨 실천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의 복구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군무자들, 건설 트레스트 로동자들, 대학생들, 각 기관 사무원들은 자기들의 가장 사랑하는 도시 평양시 복구 건설에 바치는 고귀한 땀방울 속에 래일의 아름다운 평양을 그려 봅니다.

전설장들에는 위대한 쏘련과 중국 그리고 인민 민주주의 여러 나라들로부터 보내온 뻬돈 진동기, 엑스까바또르, 탑식 구렝, 베르트 뽐베야, 콩크리트 혼합기, 다방 펌프 등 기계들이 우렁차게 돌아가고 있으며 벽돌, 자갈, 세멘트 등 건설 물자를 실은 트럭들이 불주히 오갑니다.

위대한 해방의 은인이신 쓰딸린 대원수의 이름으로 자랑 높은 모란봉 입구에서 평양 역전에 이르는 쓰딸린 대통로와 그리고 중앙 광장, 역전 거리, 서평양 광장은 8·15까지 콩크리트 포장 공사와 상 하수도 부설 공사를 끝냅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를 모시고 명절마다 모여 설 중앙 광장의 량편 종합 청사의 신축 공사는 이 기간에 2층까지 벽돌을 쌓아 올리며 그 주위를 깨끗이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수만명의 관람석을 가질 서평양 경기장의 확장, 웅장한 모란봉 회의실의 신설, 김일성 종합 대학, 김책 공업 대학의 복구 공사도 8·15 전으로 완수하게 됩니다.

평양시에는 또한 여러 고층 건물들이 우뚝 우뚝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종합 청사, 국제 호텔, 유자녀 학원, 로동자 아빠트, 공매 청사, 건설 대학 기숙사, 사무국 청사, 기타 중요 건물들의 신축 공사는 8·15까지 2층—6층까지의 벽돌을 쌓아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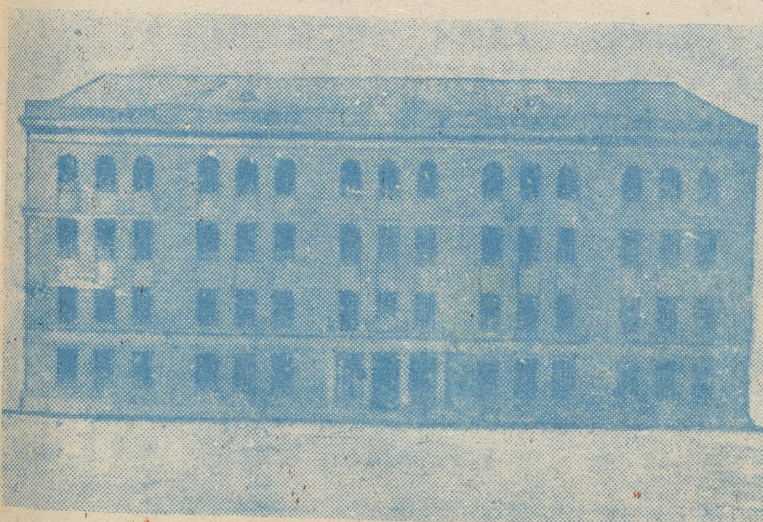
☆ 평양에 건설될 유자녀 학원 모형 ☆

새로 건설되고 있는 중앙 방송국 기계실, 발전실 및 기타 중요 시설의 신설 공사도 8·15까지 끝마치게 됩니다. 벌써 대동강 인도교의 복구 공사는 끝났습니다.

한편 평양시에서는 각급 학교들을 복구하며 신축하는 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평양시 제8, 제6, 제3, 제16, 제20, 제17, 제4, 제9, 제14, 제1, 제37, 제22, 제28, 제40, 제35 인민학교를 비롯한 22개의 각급 학교들의 복구 수리 공사를 8·15 전으로 끝내며 평양 제2 중학교를 비롯한 6개의 신축 공사는 지붕까지 씌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굉장한 복구 공사들이 날마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8·15 해방 명절에는 몰라보게 새 모습으로 바뀌여진 영웅 도시 평양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1954, 7, 1)

소년단 돐맞이 기념 현상 문예 작품 모집

산문 부문 3등 당선작

소년소설 네 동무

조선 소년단 함남 신상군 신상 제1 중학교 대 제6분단

리 종 우

△

오늘은 제2 학기를 끝맺는 날이다。

종률이와 성윤이는 통지부를 받았다。

통지부를 받아 쥔 종률이는 저도 모르게 스스로 기쁨 어린 얼굴을 짓고 있다。

이번 2학기의 성적이 지난 1학기보다 퍽으나 나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1학기에 종률이는 2점이 두개나 되고 4점 5점이 하나도 없는 한심스러운 성적이였었다。

1학기에 종률이와 성적이 똑 같았던 락제생 성윤이는 이번 학기에 2점이 또 하나 더 늘었다。

성윤이의 통지부에는 오리 2점이 세개씩이나 밝혀 있었다。 성윤이는 잔뜩 성이 나서 와락 울음이라도 터져 나올듯 낯을 찌푸리고 있다。

△ △

2학기 어느날 락제생을 없애기 위하여 분단 열성자 모임을 가졌었다。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는 락제생 성윤이와 종률이를 새 학기에는 2점이 없이 훌륭한 성적을 차지하도록 도와 주기로 했다。

분단 열성자 모임에서 락제생 문제가 의론된 다음 날이였다。

철진이는 종률이와 함께 종률이네 집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 책상위에서 이마를 맞대고 어제 선생님이 준 과제를 풀고 있었다。

그러나 종률이는 〃나무 가지에 앉은 콩새의 마음은 콩 밭에 가 있다〃는 격으로 공부엔 마음이 좀체 붙지 않는 것만 같았다。 철진이가 곁에서 자꾸만 가르쳐 주는 까닭에 종률이는 기계적으로나마 조금씩 깨닫게 되였다。

공부에 그리 재미를 붙이지 못한 종률이는 공부할때마다 꾸어온 보리자루처럼 우둑하니 앉아 있다。

『종률아 나와 함께 꾸준히 공부하자 응!』

『글쎄 공부는 해야겠는데 머리가 둔해서…』

『그런 말은 말고 꾸준하게 노력하면 돼!』

하고 철진이가 종률이를 달래였다。

종률이는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며 자기를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철진이가 고맙기도 하고 한편 미안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루 저녁은 철진이더러 영화관에 같이 가자고 했다。

종률이 말에 철진이는 깜짝 놀래며

『자 이것 좀 봐!』

하면서 학생 규칙 제16조를 내 보였다。 〃일반 영화관에 들어가지 말것〃 하고 입속으로 외여 보는 종률이의 얼굴은 붉어졌다。

우등생 응호는 락제생 성윤이와 참으로 친한 사이였다。

성윤이가 학습에서나 소년단 생활에 모범적인 소년단원이 되도록 응호는 열성껏 도와 주었다。

응호는 진심으로 성윤이를 도와 주려 했지만 성윤이는 속으로 귀찮게 생각하였다。

어느날 그들은 공부를 마치고 집에 도라오는 길에서였다。

『성윤아! 6월달이 로어로 뭐드라?』

『……』

응호의 물음에 성윤이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성윤아 ИЮНЬ를 잊었니? 너 정신 차려 공부를 해야겠다』

응호는 부드러운 말씨로 성윤이를 격정해 주었다。

『오늘 저녁엔 우리집에서 공부할까?』

『졸음이 자꾸 와서 못 견디겠는걸…』

『그래 졸음이 오면 참고 몹시 오면 좀 쉬고 하지』

응호 말에 성윤이는 시끄럽다는 듯이 그와함께 걸어가지 않고 혼자 딴 길로 뺐다。

집에 도라온 성윤이는 응호에 대해서 꼼꼼히 생각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자꾸만 응호가 싫어졌다。

성윤이는 저녁을 먹고 나서 수학 과제를 펴 들었다。

과제는 모두가 성윤이한테는 매우 힘드는 것들 뿐이다。

그는 걱정이 되였다。

한 문제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우기 얼마 남지 않은 시험이 눈앞에 아물거리는 것이였다。 때 마침 응호가 성윤네 집을 찾아왔다。

성윤이는 반가운 표정으로 응호를 맞아 주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수학 과제를 하나 하나 풀어 나가기 시작했다。

응호는 성윤이가 다 알겠다고 할때 까지 자꾸 설명해 주었다。 친절한 응호의 도움으로 성윤이의 답답하던 머리가 좀 열리기 시작했다。

그날밤 과제를 다 끝마치고 나서 응호는 성윤이에게 「너는 나를 싫어하지? 자꾸만 공부를 하잔다구…그렇지?」 응호가 먼저 물어 보았다。

이말에 성윤이는 약간 얼굴을 붉히며 대답을 망서리였다。

「좋아! 지나간 일을 말해 뭣해 이제부터는 더욱 친하게 지내자!」

응호가 하는 말에 성윤이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응, 그렇게 하자!」

고 그들은 굳은 악수를 하였다。

△ △

성윤이는 3학기 성적 통지부를 선생님으로부터 받아 쥐고 제 자리에 앉았다。 전 학기보다 훨씬 성적이 올라갔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성윤이는 생각했다。 그저 2점 짜리가 3점으로 바뀌여진것 뿐이다。

성윤이는 조금도 만족해 하지 않고 더욱 더 학습에 힘쓸 것을 속다짐하고 있었다。

그 이튿날부터 3학기 방학이 시작되였다。

아침 저녁 성윤이는 응호의 친절한 지도를 받아가며 공부하고 낮에는 마음껏 놀음으로 즐기였다。

성윤이는 다음번 4학기엔 자기도 우등의 성적을 쟁취하기에 온갖 열성을 기울였다。

그래서 그는 응호를 찾아가서 공부하군 하였다。

하루 저녁 선생님이 성윤이네 집을 찾아 왔다。

선생님은 성윤이 아버지를 만나 그의 성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였다。

이때 성윤이는 속으로 은근히 걱정했다。

선생님은 성윤이가 학교에서 공부도 잘 안하고 말도 잘 듣지 않는 락후한 학생이였지만 지금은 차차 나아간다고 말씀했다。

「그애는 선생님께 애를 많이 먹였지요。 요지음은 응호랑 같이 공부하면서 차츰 나아져 갑니다」고 성윤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였다。

한참 동안 선생님과 그의 아버지 사이에는 성윤이를 더욱 공부 잘 하도록 도와 주자는 이야기를 주고 받았다。

△ △

방학이 끝난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다。 그 동안 성윤이의 발전은 헤아릴수 없으리만큼 우수한 성적으로 되였다。

그전처럼 응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능히 혼자서 어떤 과목이라도 제 힘으로 공부해 낼 자신이 생겼다。

어느듯 6월이 닥쳐왔다。

6월부터 거의 한달 동안은 한해 배운 여러 과목들을 국가 앞에서 검열 받는 국가 진급 시험이였다。

성윤이도 자기 실력을 국가 앞에서 검열 받기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였다。

성윤이는 꾸준히 공부한 보람이 있어 국가 진급 시험을 자신 만만하게 치러 냈다。

학년 수료식이 있는날 성윤이는 가벼운 걸음으로 응호와 함께 학교로 갔다。

「저 애들도 모두 기분이 우리처럼 좋은 모양이지…」

하고 성윤이가 말하자 응호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수료식이 끝난 후 학생들은 저마다 통지부를 받아 가지고 기뻐했다。

누구보다도 성윤이의 마음은 한없이 기쁨에 벅찼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다 통지부를 받아 쥐고 제각기 집으로 갔으나 철진이, 종률이, 응호, 성윤이 넷이서는 학교 뒷뜰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통지부를 서로 바꾸어 보는 것이였다。

성윤이의 꾸겨진 통지부를 보면 종률이가 먼저 말하였다。

「성윤아…네 통지부는 왜 이렇게 꾸겨졌어?」

「그건 말이지 3학기에 2점을 받고도 내가 잘 못인줄 모르고 기분 나쁘다고 해서 꾸겨 버린거지」

하고 성윤이는 부끄럽다는 듯이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는 것이였다。

「종률이와 성윤이가 이번에는 우등을 하니까 통지부를 꾸기지 않는구나」고 웃으며 말했다。

다음 철진이가 일어서서 큰 소리로 「나는 종률이와 성윤이에게 축하를 보낸단 말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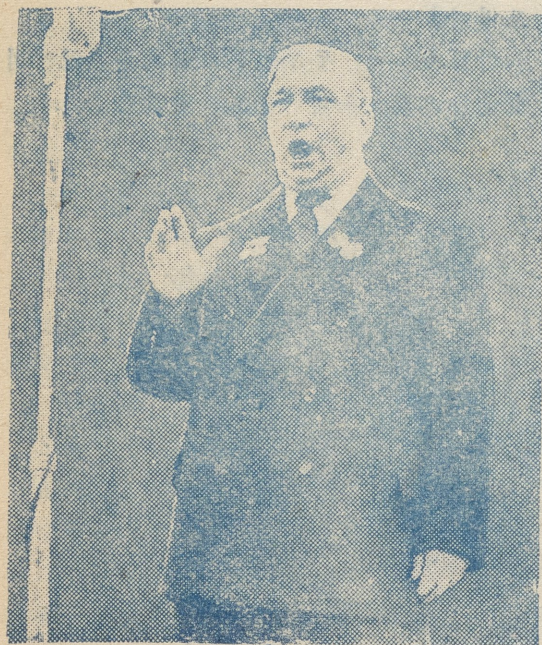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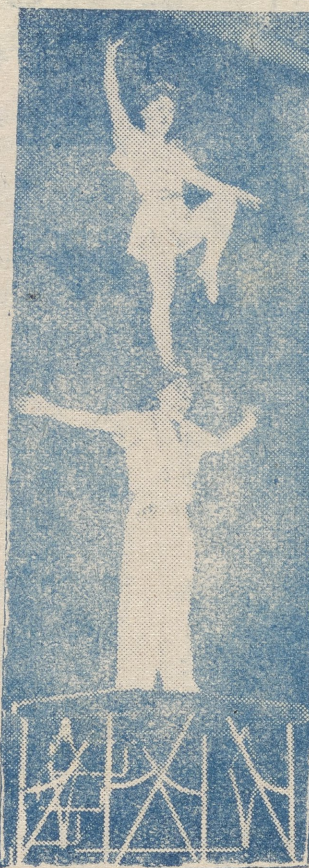
고 말하자 뒤이여 응호가 일어서며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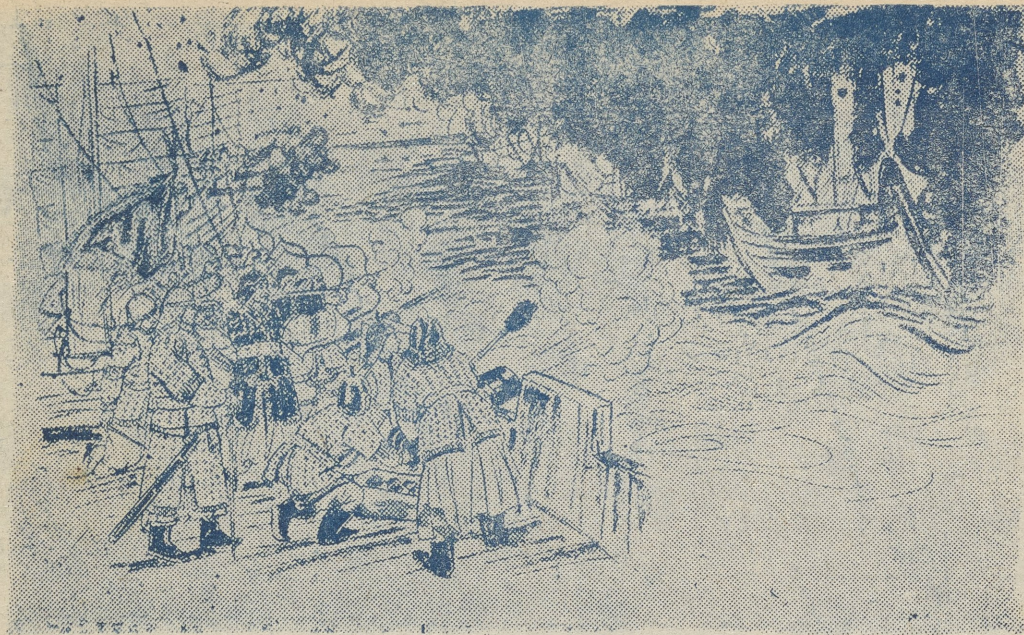
「나도 성윤이와 종률이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렇게 네 동무들은 즐거운 이야기들을 오래 오래 주고 받았다。

=조선 방문 쏘련 예술단 공연에서=

(1) 쏘련 인민 배우이며 쓰딸린상 수상자인 가수 막씸 미하일로브가 로씨야 민요 "볼가의 뱃노래"를 부르고 있다。

(2) 알렉싼들 아끼멘꼬의 바얀 독주

(3) 까자크 가맹 공화국 공훈 배우인 까자크 국립 음악단 민요 가수 로자 바글라노바는 조선 민요 "도라지"를 부르고 있다。

(4) 니나 슈비나와 유리슈빈의 곡예

(5) 우즈베크 가맹공화국 인민 배우이며 쓰딸린상 수상자인 무까람 뚜르군바예바는 안성희 안무 "부채춤"을 추고 있다。

최무선 장군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과학원
원사 박 시 형

최무선 장군은 14세기 후반 즉 고려 왕조 말기의 장군으로서 화약과 군함 제조 기술을 깊이 연구하여 왜구를 (일본 해적) 격멸하는데 큰 공로를 세운 애국자이였습니다。

14세기 후반기에 왜구는 고려의 많은 해안 지방들과 내륙 지방까지 침입하여 인민의 재산을 빼앗고 마을에 불을 지르고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학살하는 등 갖은 만행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말기의 고려 국가는 정치가 부패하고 국가를 보위하는 군대는 대단히 약화되여 있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왜구를 격퇴할만한 군함들이나 무기들을 준비하는데 대하여도 아무 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에 애국자 최무선 장군은 왜구를 물리치기 위한 싸움에서 더욱 전략 전술을 연구하고 한편 무기를 개량하기에 모든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장군의 많은 공적 중에서 특히 위대한 것은 그가 화약 제조법을 깊이 연구하여 왜구를 물리치는데 리용한 것이였습니다。

원래 화약과 대포의 제조법은 3국 시대에 널리 발달한 것이였지만은 그후 이러한 기술들은 봉건 정부의 옳지 못한 정책과 노력의 부족으로써 발전하지 못하고 도리혀 뒤 떠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최무선 장군은 우리 인민에게 심한 피해를 주는 왜구를 하루 바삐 격퇴하기 위하여 화약과 대포의 제조에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였습니다。

한편으로 우리 조선의 옛날 력사를 연구하고 또 다른 편으로 외국의 화약 제조 기술을 깊이 연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물론 당시 고려에는 최무선 장군 이외에는 화약 제조 같은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이때에 중국 강남 지방으로부터 온 상선 가운데에 약간 화약 제조법을 아는 기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화약 제조 기술은 대단히 미약하였으나 인재를 구하기에 급한 장군은 이러한 사람이라도 가물에 비를 맞이하듯이 즐겨서 그를 맞았습니다。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극진한 대우를 하고 낮과 밤을 계속하여 그와 함께 화약 제조 기술을 연구하였습니다。 애국심에 불타는 지혜로운 최무선 장군은 중국에서 온 기술자의 방조를 받으면서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여 수 십일 후에는 아주 위력 있는 화약을 제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장군은 곧 이 화약 제조 기술을 정부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워낙 보통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였던 그러한 훌륭한 일이였기 때문에 당시의 대부분의 어리석은 대신들과 장군들은 그것을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자기의 성의를 다 기울이여 정부 대신들을 설복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국 최무선 장군을 총책임자로 하고 대량으로 화약을 제조하는 사업이 시작되였습니다。

화약 제조와 함께 역시 최무선 장군을 총책임자로 하고 위력 있는 각종 포와 포탄과 화살들이 많이 제조되였습니다。 또 장군의 직접 지도하에 성능이 아주 높은 군함들이 많이 제조되였습니다。

1380년 왜구의 배 3백 여척이 전라도 진포로 침입한 것을 물리치는 전쟁 때 최무선 장군은 직접 부원수로서 싸움에 참가하여 자기가 만든 위력 있는 군함들과 대포, 포탄, 화살, 화약 등을 자유로 리용하여 적선 전부를 격침시키는 위대한 공훈을 세웠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 나라 력사상에서 아주 유명한 사실의 하나로 되여 있습니다。

참패한 적들은 뭍으로 올라 지리산 가까이 있는 운봉역에까지 도망쳐 왔다가 거기에서 리성계 장군 (후의 리조 태조) 이 지휘하는 토벌 부대에게 전멸되였습니다。

왜구가 없어진 이후 인민의 생활은 대단히 안정되였습니다。

왜구 격멸과 인민 생활 안정에 최무선 장군이 막대한 공로를 세운 것은 명백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인민은 몇백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최무선 장군의 공로를 높이 찬양하고 그를 존경하는 것입니다。

최무선 장군은 지극한 애국주의자였습니다。 그의 훌륭한 지혜와 기술도 바로 이 고상한 애국주의에서 솟아 나온 것입니다。

최무선 장군은 자손 후대와 조국의 운명에까지도 깊이 생각을 돌리고 자기 아들 최해산을 통하여 화약 제조 기술이 후세에 길이 전달되도록 잘 가르쳐 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최해산은 자란 후에 자기 아버지의 부탁을 충실히 실천함으로써 조국에 복무하였습니다。

최무선 장군 부자의 화약, 포, 군함 등의 제조 기술은 나중 15세기 전반 세종 대왕 때에 와서 더욱 발전하여 그의 대마도 왜구 정벌 때에 더욱 효과 있게 사용되였고 또 16세기말 임진 조국 전쟁 시에는 리순신 장군의 함대에서 활용되여 일본 침략자들을 격퇴하는데 위대한 성과를 내였습니다。

최무선 장군이 조선 인민에게 이바지한 공로는 실로 훌륭한 것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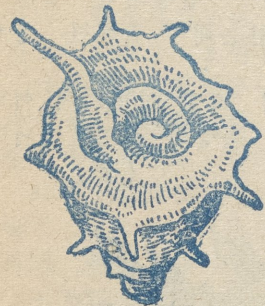
(끝)

친선의 선물을 보낸다

우리는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자연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다。

때때로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산으로 바다로 행군을 조직하여 즐거운 야영 생활을 하고 있다。

이미 우리들은 봄 방학에 근방 광산을 견학하고 선물로 받아 온 여러가지 광석을 표본으로 만들었다。 또한 성진 제강소를 견학하고 마그네싸이트, 흑연, 대리석 등을 수집해 왔다。

이리하여 우리들이 만든 표본들에 설명을 붙이고 그것을 정리하여 학과 학습에 도움을 받

☆ 조선 소년단 함북 김책군 제5중학교 대 위원장 허연화 ☆

고 있다。

그후 우리 대 모임에서는 바다에로 행군을 조직하고 해초, 패류들을 모아다가 표본을 만들기로 하였다。

이 모임에서 허춘자 동무는 『우리 동해 바다의 명산물을 표본으로 만들어 해방 지구 개성 중학교 소년단원들에게 선물로 보내자』고 제기하였다。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모두 이 제의를 박수로 환영하였다。

우리들은 바닷가에서 곤포, 청조, 간들레, 메역, 김 등 10여종의 해초와 보랍, 달팽이, 소라, 밥조개, 대합, 메역조개, 섭조개, 명주조개, 백합 등 수십종의 패류를 수집하였던 것이다。

우리들이 주어 온 패류의 이름과 그 특징, 서식처, 서식작용, 용도, 가공법 등을 수산 사업소 소장 선생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어 가지고 표본을 만들고 매개 표본마다에는 우리가 배운 지식으로 설명책을 만들었다。

이렇게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이 정성껏 만든 해초, 패류 그리고 광물 표본을 해방 지구 개성 중학교 소년단원 동무들에게 친선적 선물로 보낸다。

앞으로 자주 친선의 편지 및 선물을 서로 교환할 것을 바라면서。

☆ 소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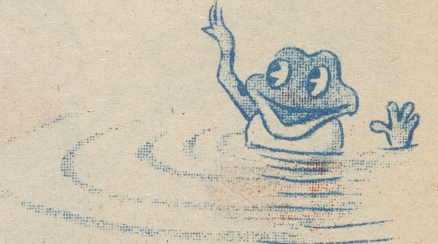
☆ 간들레 ☆

쪽 배

개구리와 병아리, 쥐, 개미와 딱장 벌레가 놀러를 떠났습니다。
이들은 개울가에 와 닿았습니다。

『얘들아 우리 헤엄치며 놀자!』 이렇게 말하고 개구리는 첨벙하고 물에 뛰여 들었습니다。

『우린 헤염칠 줄을 몰라』하고 병아리와 쥐, 개미 그리고 딱장벌레는 말했습니다。

『와—하—하! 와—하—하!』 이렇게 웃어 대며 개구리는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데 쓸 모가 있니!』하며 너털 웃음을 웃는 것이였습니다。

병아리, 쥐, 개미와 딱장 벌레는 분하기 짝이 없었지요。

그래 그들은 궁리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생각해 냈습니다。

병아리는 가서 나무 잎을 가져 왔고,

쥐는 호도 열매 껍질을 주어 왔으며,

개미는 짚오리를 끌어 왔고,

따장벌레는 실오리를 얻어 왔습니다。

이윽고 일이 시작되였습니다。 호도 열매 껍질에 짚 오리를 꽂고 나무 잎을 노끈으로 동여매여 쪽배를 만들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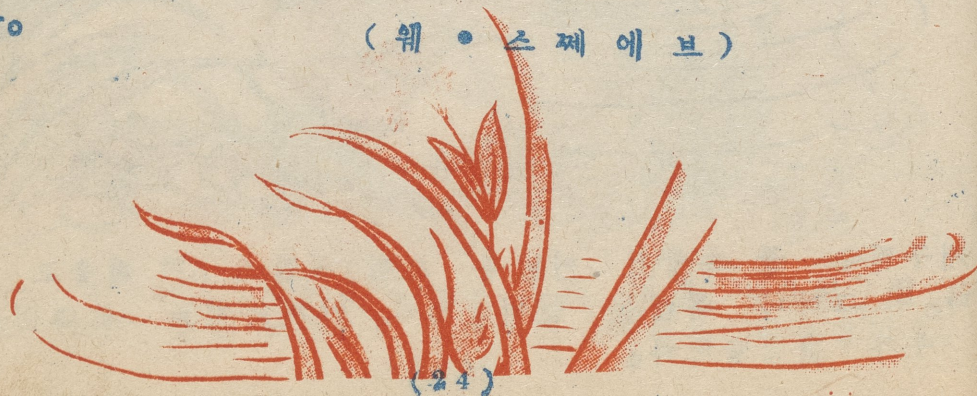
쪽배를 개울에 띄였습니다。 쪽배에 들어 앉아 떠났습니다!

개구리는 물 속에서 머리를 조빗 내밀고 더 비웃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쪽배는 벌써 멀리 가버렸지요 …… 그것을 뒤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쪽배는 널판자나, 소나무 껍질이나, 고르고 병마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뽀뜨는 종이나 원두 짝지를 가지고도 만들 수 있습니다.

쪽배를 만들어 보시요. 그것은 틀림 없이 잘 떠다닐 것입니다.

(웨 • 스쩨 에 브)

남이가 본 두꺼비

박 인 범

무더운 여름날입니다.

사람들은 앞가슴을 풀어 헤치고 부채질을 합니다. 저녁 연기가 밑으로 기여다닙니다.

암만해도 비가 오겠는데—

남이는 생각했습니다.

이때 마당 가운데서 엉큼 엉큼 추녀 밑으로 기여 오는 놈이 보였습니다.

이놈은 바로 두꺼비였습니다.

남이는 유심히 두꺼비를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어째서 저놈은 사람의 집으로 뛰여들까?

두꺼비는 담벽 밑에 머물더니 끔짝도 하지 않습니다.

(어째 저렇게 가만이 있나.)

남이는 마치 두꺼비와 눈 깜짝이지 않기 내기라도 하는듯이 얼마동안 들여다 보고 있었습니다.

두꺼비가 앉아 있는 마즌 벽에 날아가던 파리 한마리가 붙었습니다. 두꺼비는 이것을 보고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약간 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두꺼비는 뒷발 하나를 뒤로 넌즛이 내밀기 시작하더니 파리에게로 차츰 다가갔습니다.

이때 〃달칵〃 소리와 함께 두꺼비의 턱아래가 움질거릴뿐 파리는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 ×

『쏴아—』

드디여 마당에는 비가 쏟아

졌습니다。추녀밑에는 보지 못하던 벳장이가 한마리 날아 들었습니다。두꺼비는 눈을 껌벅이며 파리를 찾는 모양입니다。그러나 한마리의 파리도 없었습니다。

이때 남이는 깨달았습니다。

—곤충들은 비를 피해서 사람의 집으로 날아 들었고 두꺼비는 이것들을 노리고 미리 집안으로 기여온 것이구나。

그러나 금년부터 우리 집엔 파리의 씨도 없어진 것을 두꺼비 놈은 모르는구나—

남이는 두꺼비에게로 가까이 갔습니다。그러나 두꺼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이놈 두껍아, 미안하구나。대접을 못해서』하며 남이는 발끝으로 건드려 보았습니다。그때야 두꺼비는 껑충 뛰였습니다。

남이는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부엌에 파리 있거든 내쫓으세요』。

『정신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파리가 어디 있니』。

『응, 암만 해두 두꺼비 굶어 죽겠는데—』。

『글쎄,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한다는 말이 있는 것을 보면 두꺼비는 파리를 좋아하는 모양인데 없어서 좀 안됐구나』。

어머니는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두꺼비는 어슬렁 어슬렁 기여서 이웃 집으로 갑니다。

『두껍아 안됐다。파리가 없어서…』하고 또 한번 남이는 두꺼비에게 말했을때 두꺼비는 넙적한 입을 벙긋 하는 것이 남이에게는『한마리도 없어야 해 오늘 한마리가 래일이면 수천마리가 되는 거야—』하고 말하는 듯이 느꼈습니다。

『어머니 두꺼비는 접병반장인지도 몰라!

우리 집에서는 파리 한마리를 발견하고 잡아 갔어요』。

『한마리도 없어야 할걸! 두꺼비에게 오히려 부끄럽다 야!』。

×　　　×

이날밤 남이는 어머니에게서 두꺼비에 대한 옛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옛날 어떤 집에서 두꺼비를 길렀는데 어느날 잠든 애기와 두꺼비를 방에 두고 밖으로 일을 나갔더란다。이때 방에 남아 있던 두꺼비는 잠든 애기 얼굴로 날아 앉으려는 파리를 잡아 먹고 있었지。그런데 한쪽 허물어진 벽에서 흙덩이가 떨어지더니 시퍼렇게 생긴 지네 한마리가 방으로 기여 나오드라는 구나…』。

『아이유, 그 무서운 독충 지네말이요?』하고 이야기를 듣던 남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이것을 본 두꺼비는 지네 앞으로 다가가더니 사지에 힘을 주고 노리면서 꼼짝 하지 않드래…』。

『야—아 왜 그랬을까?』。

『그러자 지네도 더는 기여 나오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두꺼비에게로 독을 뿜더라는구나…』。

어머니의 이야기를 남이는 눈이 둥그래서 듣고 있었습니다。

『얼마동안 두꺼비와 지네가 이렇게 노리고 있더니 웬 셈인지 벽에서 지네는 고만 뚝 떨어져 죽어버리지 더란다』하고 이야기를 마치였습니다。

『그러니까 두꺼비도 지네에게 독을 뿜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두꺼비 독에 지네가 죽고 말았지!』。

『응, 두꺼비는 정말 독이 있나요?』。

『글쎄。그런 이야기는 선생님에게 물어보지…』。

×　　　×

다음날 남이는 자연과 시간에 선생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두꺼비에게 독이 있습니까?』。

『두꺼비는 제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니고 있는 일종의 독이 있습니다』。

『선생님 금년과 같이 우리들이 파리를 모두 잡아 버리면 두꺼비는 뭘 먹구 삽니까?』。

『허허…걱정 마시고 파리의 씨를 없애시요。두꺼비는 들로 나가서 모기와 무당벌레 같은 해충들을 잡아 먹고 산답니다』。

선생님은 웃으시며 대답하였습니다。

남이는 두꺼비가 우리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하는 동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끝—

소년 합창단

평양 제14 인민 학교
교장 차 진 후

즐거운 여름 방학이 왔습니다.

소년 구락부의 음악실에서는 여름 방학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소년 합창단의 노래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지금 소년 합창단은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어느 때보다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깨끗이 가시여진 우리 학교 2층 동쪽 교실은 소년 합창단이 새 노래를 배우며 련습하는 음악실입니다.

누구나 노래 소리가 울려 나오는 음악실에 들어서게 되면 깨끗하게 꾸려진 방 한쪽에 놓여진 훌륭한 피아노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피아노는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의 자랑이며 소년 합창단의 자랑입니다. 이 피아노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항상 두터운 배려를 배풀어 주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서 우리들에게 학습과 소년단 사업에 열성을 다하여 조국과 인민의 참된 아들 딸이 되라고 주신 귀중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 학교 전체 소년단원들의 감격을 자아냈으며 합창단을 발전시키는데 더욱 힘쓰도록 고무했습니다.

우리 소년 합창단은 5·1절 경축 평양시 경연 대회에 출연하여 1등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 합창단은 남자 82명, 녀자188명으로 조직되여 남오희, 박화자 동무들을 중심으로 규률 있게 움직여 지고 있습니다. 원쑤 미제놈들과 판갈이 싸움을 하고 있던 1952년 4월 5일에 50명으로 처음 조직되여 토굴 속에서 꾸준한 련습으로 자라나 왔습니다. 항상 승리의 신심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힘차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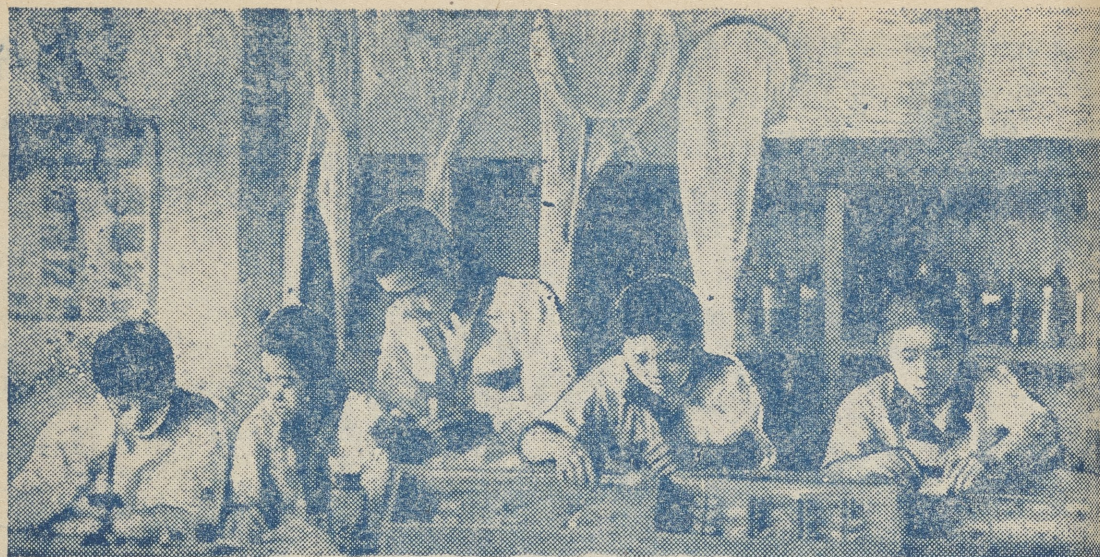
이리하여 우리 합창단은 소년단원들이 열심히 학습하고 즐겁게 휴식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노력해 온 우리 합창단은 복구 건설에 일어선 인민들과 군무자들을 위안하여 환영을 받고 있으며 중앙 방송국 마이크 앞에서 이미 40여회나 노래를 불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학교 대 소년◎합창단은 날마다 달마다 자라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동무들을 참가시켜 더 큰 합창단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전망은 소년단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더욱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대 소년단원들은 소년 합창단 뿐만 아니라 소년 구락부의 다채로운 생활로 여름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도서실, 무용실 체육실, 공작실, 작품 전람실, 등 화려하게 꾸며진 소년 구락부에서 소년단원들은 자기들의 소질과 취미에 따라 재미있고 유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소년단원들은 소년 구락부 사업을 더 잘해 나가며 소년 합창단을 더 굉장하게, 훌륭하게 만들기 위하여 꾸준히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은—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께서 주신 피아노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고 있는 소년 합창단

우리들이 만든 곤충 표본

조선 소년단 평북 신의주 시 제4 중학교 대
생물 써클원 김 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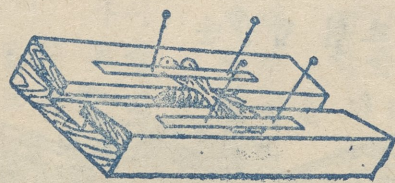
곤충 표본 전람실에는 매일 같이 분단 별로 어린 관람자들이 줄지여 모여 든다。

따거운 햇빛은 교실 창문 넘어 표본 진렬장 유리들을 눈부시게 비친다。

풍뎅이의 금빛 색 반점들과 나비류의 부드러운 린분들이 햇빛에 반사되면서 더욱 아롱아롱 빛난다。

여기에 진렬된 400여점의 곤충 표본은 대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우리 생물 써클원들이 방학이 시작된 그날부터 꾸준히 만들어 온 로력의 열매인 것이다。

우리 생물 써클의 어린 생물 학자들은 매일 전람실에서 관람자들에게 써클에서 연구한 곤충들의 생활과 표본을 만드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방금 들어오는 관람자들에게 어린 생물 학자 명호 동무가 설명해 나가고 있다。

『성충이 되기까지 7—8년 동안이나 땅속에서 자라난 풍뎅이는 청산가리를 넣은 독병 속에 넣어 죽인 다음 가슴 오른쪽 날개의 앞 부분을 곤충침으로 찔러 표본통에 보존하게 됩니다。이때 곤충침이 $\frac{2}{3}$ 이상 들어가게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노린재류는 가운데 가슴 삼각형의 중앙부를 찔러야 하지요』하고 설명하면서 작은 곤충들의 표본을 가리키며 소형 곤충들의 표본 제작에 대해 설명을 계속해 갔다。

『무당벌레와 같이 작은 곤충들은 곤충침으로 찌르기 곤난하므로 첨부판에 붙이게 되지요。첨부판은 두터운 용지를 베여서 만든 것인데 여기에 아라비야 고무풀 (또는 된풀)로 곤충을 붙인 다음 표본통에 넣고 첨부판의 한

쪽을 곤충침으로 찔러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작은 곤충들을 첨부판에 붙일 때에는 곤충의 몸이 바로 놓이도록 주의하며 발과 촉각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주의하여야 합니다』。

명호의 설명이 끝나자 관람자들은 나비류 표본이 놓여 있는 진렬장 앞으로 옮겨 갔다。

대기하고 섰던 한덕 동무는 1년에 4세대나 번식되는 흰 나비로부터 붉은점 흰나비며 꼬리긴 호랑나비들에 대한 간단한 특징들을 설명하고 나서 나비류 표본 제작 방법을 이야기하였다。『나비류 표본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전시판을 사용하게 됩니다。전시판은 길이 26Cm, 홈의 깊이를 18mm로 하는 것이 보통이지요。 나비의 흉부를 찌른 곤충침을 전시판의 중앙 홈에 박고 나비류의 몸이 전시판의 홈 안에 들어가게 하며 날개의 아래 부분이 전시판에 대우는 정도의 위치에다 고정합니다。 그리고 종이를 길게 베여서 날개의 위에다 대고 바늘로 찔러서 날개를 고정시켜야 합니다。

이때 자루 붙은 바늘과 삔셋트로 촉각 또는 발의 위치를 좌우편이 똑바르게 해 놓고 5일 내지 7일 정도 두었다가 전시판에서 표본통으로 옮기게 됩니다。 특히 전시할 때에 날개 위의 린분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하게 취급해야 합니다』라고 설명을 해 갔다。 이때 설명을 듣고 있던 영희가『삼각지에 싸둔채 오랫 동안 보존하였던 나비들도 전시할 수 있는가?』고 물었다。

한덕 동무는『채집한지 이미 오랜 나비들도 전시할 수 있습니다。 채집한지 오랜 나비들을 전시할 때에는 가제에 물을 묻쳐서 양철통 안에다 펴고 그 위에다 나비를 놓고 물 묻은 가제를 나비 위에 또 한장 씌워 충분히 습기를 주어 날개가 연하게 된 다음 전시하면 되지요。 그런데 습기에 날개가 연하게 되자면 여름엔 보통 2—3일, 겨울엔 7—8일이 걸려야 된답니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액침 표본에 대한 설명을 내가 해야 할 참이였다。

나는 흰나비의 유충 청벌레며 풍뎅이의 유충 굼벵이 등 액침한 표본들을 설명해 준 다음 곤충들의 유충과 번데기 또는 기생 곤충들을 액침할 때 쓰는 알콜 및 호루마링 용액 사용법들을 이야기 해 주었다。

우리의 꾸준한 노력으로 이루어진 이 곤충 표본 전람은 전체 소년단원 동무들의 학과 학습에 훌륭한 도움을 주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표본을 만들기까지에는 어려운 일들이 적지않았다。

그것은 우리에게 표본 제작 용구가 그리 넉넉치 못했고 또 표본 제작 방법들을 잘 알지 못한 그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생물 써클 지도원 선생님의 지도 밑에 여러가지 연구와 노력을 거듭하여 해결해 나갔다。 특히 김일성 종합 대학 동물학 강좌에 계시는 주동률 선생님께 우리들이 문의한 〃표본 제작 방법에서의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은 곤충 표본 제작에 커다란 도움을 가져왔다。

우리들은 지난 날의 경험을 보다 살리여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휴가중에 더 많은 곤충들을 채집하며 훌륭한 표본들을 만들 것이다。

이 표본들은 새 학년도를 맞으면서 학교에 드리는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선물로 될 것이다。

조선 소년단 판문군 평화 인민 학교 내
제2분단 위원장 **김 형 창**

여름 방학을 보람 있게 보내기 위하여 우리 학교 내 소년단원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도 동무들은 읽은 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도서실로 모여듭니다。

『얘, 너 "우리들의 과학 교실"을 다 읽었니?』。

『난 지금 읽고 있어! 넌 "빠블리고 모로조브"를 다 읽었니? 참 재미 있는 책이야』。

『응, 참 좋은 책이야! 빠블리고 모로조브가 어떻게 쏘베트 조국을 사랑했으며 자기 고향의 꼴호즈 건설을 위하여 얼마나 몸바쳐 일했는가… 그리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

리춘자 동무와 고화자 동무가 주고 받는 이야기입니다,

이와같이 우리 학교 내 소년단원들은 제가끔 자기들이 읽은 책에 대하여 동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모든 동무들이 책을 애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책들이나 『소년단』, 『소년 신문』이 나오면 그것을 벽보 『평화』에 소개하여 소년단원들의 독서 의욕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간혹 짧은 소설이나 옛 이야기는 많은 동무들이 모여 랑독도 합니다。 지난 3학기에 가진 옛 이야기 책－『무지개』, 『혹뗀 이야기』에 대한 이야기 모임은 전체 소년단원들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이 모임을 가진 다음부터 소년단원들은 책을 더 많이 읽게 되였습니다。

새로 나오는 책은 어떤 책일까? 이번에 보게 될 『소년단』과 『소년 신문』에는 무엇이 실렸을까? 하고 모두들 손곱아 기다립니다。

우리들이 가장 애독한 책의 하나는 쏘련 소년 소설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 말레예브』 입니다。 이 책에서 우리들은 배운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참된 우정으로써 뒤떨어진 동무를 도와 주어 분단 동무들이 모두 공부를 잘해나가며 삐오네르 생활을 재미 있게 하는 모습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지난 날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의 통치 밑에 있었을때는 이와 같은 훌륭한 책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놈들은 전쟁만 꿈꾸면서 자기들의 노예로 만들려는 교육과 나쁜 책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미제와 리승만 역도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더욱 북바쳐 오릅니다。

인민 군대와 중국 인민 지원군은 우리 나라에 전쟁을 일으킨 미제와 리승만 도당들을 무찔러 내고 우리 고향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해방된 우리들은 조선 로동당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의 따뜻한 배려 밑에 공화국의 민주 학원에서 행복하게 공부하며 마음껏 좋은 책들을 읽을 수 있게 되였습니다。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 말레예브』라는 책은 김형련 동무와 김용성 동무의 락제 과목을 없애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자기의 수치를 벗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할 대신에 도리혀 커닝질이나 남의 학습장을 보고 과제를 옮겨 베끼는 것으로 자기의 공부를 다한 것처럼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분단의 영예를 위하여서도 이 동무의 락제 점수를 없애는 것이 중요한 일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분단에서는 이 중요한 사업을 김원서 동무에게 위임하였습니다。

분단의 위임을 받은 김원서 동무는 김형련, 김용성 동무들에게 『학교와 가정에서의 위짜 말레예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면서 락제 점수를 받았던 위짜 말레예브와 꼬쓰짜 쉬슈낀이 어떻게 하여 전과목 5점으로 5학년에 진급하게 되였는가에 대한 재미 있고 중요한 대목을 읽어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는 한편 우리 분단에서는 커닝질이나 남의 학습장 베끼는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하여 여러가지 일을 했습니다。 벽보에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이 없는가?』 라는 제목 밑에

『위짜는 남의 커닝질을 좋아하는 아이, 위짜는 커닝질과 아주 친한 아이, 그러나 커닝질이 위짜를 망쳐 먹지, 커닝질은 위짜에게 2점만 맞게 하지』라는 시와 함께 그 책에 있는 만화 (귀를 서너발씩 되게 그린)를 실렸고 커닝질해 주거나 학습장에서 과제한 것을 베끼게 하는 것은 자기 동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쳐 먹는다는 것을 위짜와 꼬쓰짜가 깨닫고 참된 우정으로 서로 도와 나가는 장면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참된 우정』에 대하여 모임을 가지였습니다。

이리하여 우리 분단에서는 커닝질이 없어지게 되였고 과제를 안하고 남의 것을 베끼는 일이 없어지게 되였습니다。 모두 자기 힘으로 공부하게 되였으며 또한 그렇게 도와 주었습니다。

이렇게 힘쓴 보람이 있어 진급 시험에서 김형련 동무는 락제 과목이던 국어, 산수를 4점, 김용성 동무는 산수, 력사를 3점의 성적으로 5학년에 올라갔습니다。

이와같이 책은 우리들의 나쁜 습관을 고쳐 주는데 도움을 주었고 학습을 잘 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한 참된 우정으로 서로 돕는 아름다운 우정을 키워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책은 우리들의 사랑하는 벗으로 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열심히 책을 읽고 있습니다。

어린 싹들이 자란다

"소년단" 편집부는 금년 1월부터 6월까지 여러 동무들로부터 480여건의 문예 작품을 받았다。

이 문예 작품들 속에는 동요, 동시, 소년 소설, 아동극, 옛 이야기, 동화, 우화, 작문 기타 작품들이 들어 있다。

여러 동무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원수에 대한 충성과 조국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학습과 사회 사업에서와 또한 복구 건설되는 우리 조국의 오늘과 래일을 힘차게 노래하였으며 재미 있게 그려 내였다。

잡지 "소년단"은 1월호에서 6월호까지에 걸쳐 아홉편의 동요, 동시를 실었다。

그 아홉편의 작품들은 모두 "어린 문학가"들이 자기들의 생활을 솔직하게 반영한 작품들임을 높이 평가한다。

박천 제5중 리덕용 동무는 "내 동생"에서 동생을 귀여운 눈으로 보고 있으며 단천 제1중 한은순 동무는 인민군대 오빠의 품에 안겨 사진을 찍은 감격을 노래 부르고 있다。

양덕 제2중 김석팔 동무는 "잿등 고개"에서 자기의 생활과 잿등고개를 잘 결부시켰고 체코슬로바키야 인드리호브 학원 박수경 동무는 "우리는 맹세합니다"에서 수령의 뒤를 따라 훌륭한 애국자가 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으며 강동 제1중 리관숙 동무는 "뛰뛰기"에서 자기들의 즐거운 유희 생활을 노래 부르고 있다。 태천 제6중 김윤명 동무는 "제비야 어서 오너라"에서 새 집에 사는 기쁨과 함께 제비에 대한 애정을 그리고 있으며 박천 제5중 김상빈 동무는 "전설 놀이"에서 공장의 기술자가 되겠다고 마음 다지고 있다。

이와 같은 우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이 작품들속에는 몇가지 결함들이 있다。

우리 편집부는 앞으로 동무들의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에 그 몇가지 결함들을 분석한다。

첫째, 제목과 내용이 잘 맞지 않는 점을 "뛰뛰기에서 찾을 수 있다。

내용이 잡기내기 같이 씌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식으로 된 작품이 있다。"사진 찍은 날"은 사진을 찍은 순서를 기록하고 있는 감을 준다。 작품은 기록식으로 되여서는 안된다。

형상을 통하여 사건과 작중 인물을 보여 주어야 한다。

세째, 어른들의 작품을 그대로 본따려는 경향이 간혹 보인다。

즉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글 솜씨로 작품을 만들려는 노력을 할 대신에 남의 글을 작품속에 부분적으로나마 옮겨 놓는 그런 경향인 것이다。

"전설 놀이"에서 『오빠인양』이란 말 같은 것은 어른 "시" 에서나 쓸 말이다。 여러 작품들에서 이런 흠집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어디까지나 아동의 립장에서 자기의 실제 생활을 거짓 없는 자기의 감정으로 노래하여야 한다。

네째로, 비슷(류사)한 제마의 것을 되풀이 하는 경향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거의 공통적인 좋지 않은 경향이라고 지적한다。 가령 "잿등 고개"만 보더라도 물론 이 작품이 창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작품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 왔기 때문에 읽으면서 아무 새로운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새로 싹트는 새 "어린 문학가"들이 쓰는 작품이라면 새로운 맛이 나야 할 것이다。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쓴 작품 중에는 흔히 교훈적인 것이 많다。

교훈적인 것이 나쁘다는 의미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자라나는 여러 동무들이 어른들의 작품을 그대로 본따서 써서는 안된다。

여러 동무들은 반드시 자기들의 생활과 생각을 잘 골라 가지고 자기 힘으로 작품을 써야 한다。 운문(동요, 동시)에 있어서는 더 그런 것을 느끼게 되는데 어린이들의 작품답지 않은 작품은 마치 어린 아이가 어른의 흉내를 내는 것과 같은 감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무들이 작품을 쓰려고 할 때 무엇을 쓸까? 이런 조급한 생각에서 신문이나 잡지를 뒤적여 남의 작품의 제목을 따거나 내용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자연을 살피며 자기 생활을 곰곰히 생각하는데서 자기 독특한 『상』(생각)을 잡아야 한다。

아무리 쓰려고 해도 『상』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쓰지 말아야 한다。

아무 느낌도 일지 않는데 글을 쓰려는 노력은 쓸 데 없는 수고로 된다。 또 이렇게 무리를 해서 작품을 쓴다 해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는 없다。

앞으로 문학의 새 싹들인 동무들은 작품을 쉽게 쓰려 하지 말고 진지한 태도로 작품을 쓰기 위한 공부를 많이 해달라는 것을 부탁한다。

이상 잡지 "소년단"에 발표된 몇개의 작품들을 분석 비판한 결함들은 발표되지 않은 수다한 작품들에도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재삼스럽게 평하지 않기로한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동무들이 작품을 "소년단"편집부에 보낼 때는 반드시 문학 써클에서의 합평 혹은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보내도록 해야 한다。

(편 집 부)

◁구전 동요▷

『새는 새는』

새는 새는 낡에 자고
쥐는 쥐는 굵에 자고
소는 소는 마구자고
닭은 닭은 회에 자고
우리 같은 애기들은
엄마품에 잠을 잔다

※『낡』은 나무, 『굵』은 구멍, 『마구』는 마구간이라는 말입니다。

재미 있는 여름 유희

◁ 물 길어 내기 ▷

즐거운 야영지— 강가에서나 해변가에서 여러 동무들이 재미 있게 할 수 있는 〃물 길어 내기〃 리레를 소개한다。

용적이 같은 물 바케쯔 두개와 쇠로 만든 곱뿌 두개가 필요하다。

강물에 혹은 바다 물 가운데 (물이 배꼽에까지 올라 오는 정도를 말함) 나무 표챙이를 무개 꽂고 그 맞은 쪽에 바케쯔를 놓는다。

바케쯔와 나무 표챙이 간의 거리는 20—40보이다。

바케쯔 뒤에 서너 발자욱 떠러져 출발선을 그어 놓는다。 이 놀음에 참가할 동무들은 두 패로 나뉘이고 1렬 종대로 선다。 량 패의 앞에 선 두 동무에게 곱뿌를 내 준 다음 심판자는 두 바케쯔 사이에 선다。

심판자의 신호에 의하여 첫 쌍의 두 동무는 뛰여서 강물속에 있는 나무 표챙이를 돌아 서면서 곱뿌에 물을 담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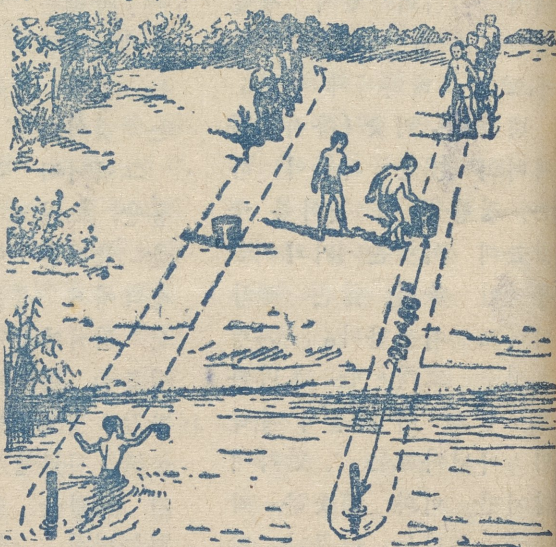
곱뿌에 하나 가득 물을 담아 가지고는 인차 뛰여 제자리로 온다。

곱뿌에 담아 가지고 온 물은 바케쯔에 쏟는다。

출발선에서 자기 편의 다음 동무에게 곱뿌를 인계해 주고 종대의 마지막 끝 자리에 가 선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물을 길어 온다。 바케쯔에 먼저 물을 가득 채운 편이 승리자이다。

※ 만약 바케쯔는 크고 곱뿌는 작다면 두번씩 물을 길어갈 수도 있다。

속담

◁**남의 말 하기는 식은 죽 먹기。**

남의 결점을 찾아 내기에는 매우 쉬운 일이라는 말。

◁**남의 말이라면 쌍 지팽이 짚고 나선다。**

남의 시비를 잘 걸고 나서는 자를 보고 하는 말。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

남이 없는 곳에서라고 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못 쓴다는 경계를 주는 말。

◁**너구리 굴 보고 피물 돈 내쓴다。**

너구리 가죽(피물)을 팔면 돈이 된다, 성급한 사람이 너구리 굴을 보고는 미리 돈부터 꾸어 쓴다는 뜻인데 계획한 일이 채 되기도 전에 미리 덤비는 사람을 가르쳐 하는 말。

◁**눈 먼 탓이나 하지 개천 나무래 무엇 하나。**

자기의 부족은 모르고 남만 원망하는 자를 가르쳐 하는 말。